

기획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5차 회의

일시: 2009년 8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5차 회의가 지난 26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9명 중 4명이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김일환 여론매체부장이 참석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발행된 본보 지면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광주일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조현중 (국립광주박물관장)



광주 '충장로 축제' 역사·문화 보여줘야

류동훈 (문화도시일자리사업단 본부장)



마치 직접 경험한 듯 'DJ서거' 칼럼 인상적

문기전 (광주YMCA 금남로회관 관장)



'박진현의 문화카페' 깊이 있는 담론 훌륭

권순석 (화순전남대병원 안센터 교수)



'신종 플루' 보도신중음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

▲류동훈(광주·전남행복발전소 문화도시일자리사업단 본부장)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호남지역 언론들이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관심 있게 지켜봤다. 그 중 가장 인상깊게 본 것은 광주일보 지난 19일자 21면에 실린 조경완 편집국장의 칼럼 '금남로에서다. '그가 없는 아침에'라는 제목의 칼럼은 일반인은 알 수 없는 DJ와의 이야기를 다뤘다. 인동초나 하의도 이야기와 같은 일반인도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DJ와 직접적인 인연을 쉽게 풀어주면서 칼럼을 써내려가 내가 직접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문기전(광주YMCA 금남로회관 관장) = 광주시 동구의 '충장으로 축제'가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뿔뿔했다. 도심 속 축제로 유명한 축제가 된 만큼 광주의 역사와 함께 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여러 축제를 연결해서 질 높은 축제로 만들 필요도 있다.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인데 언론들도 일방적인 퍼주기 기사보다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조현중(독자위원회 위원장·국립광주박물관장) = 최근 DJ 서거나 나로호 발사, 문화수도 문제 등 광주일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바쁜 건 알겠지만 오타가 나오지 않게 좀 더 신경 써 주면 좋겠다. DJ 서거 후 하의도와 목포를 연결한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기사를 봤는데 신문에 '목포'가 '목표'로 나왔다. 더욱 신경을 써서 꼼꼼히 봐 실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순석(화순전남대병원 안센터 교수) = 최근 신종플루가 핫 이슈인데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줘야 한다. 시민들은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데 언론은 문제의 본질을 보고 제시하고 그 순간의 불안이나 공포가 아니라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유도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류동훈 = 맞는 말씀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로호 발사와 관련해 광주일보는 바람직한 논조를 잡았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나로호 발사를 실패로 규정했지만 광주일보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타이틀로 가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줬다. 이 지역에 일어나는 큰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일도 중요한데 긍정적인 면도 잘 들여다 볼 수 있게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 또 고희이라는 지역 이름을 부각시켜주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줬다.

▲문기전(광주YMCA 금남로회관 관장) = 광주시 동구의 '충장으로 축제'가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뿔뿔했다.

▲조현중(독자위원회 위원장·국립광주박물관장) = 최근 DJ 서거나 나로호 발사, 문화수도 문제 등 광주일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바쁜 건 알겠지만 오타가 나오지 않게 좀 더 신경 써 주면 좋겠다. DJ 서거 후 하의도와 목포를 연결한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기사를 봤는데 신문에 '목포'가 '목표'로 나왔다. 더욱 신경을 써서 꼼꼼히 봐 실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현중 = 충장로 축제의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아졌고 참가 인원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 질적 성장을 위해 추억찾기만이 아닌 정돈되고 격조 높은 광주의 역사문화를 보여줘야 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찾아오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러브 퍼레이드'의 경우 4일간 열리는 데 일주일 만에 관광객이 몰려온다. 대신 참가자들 손에 고무밴드를 채워주는데 이것만 있으면 4일간 버스타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마음대로 탈 수 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게 하는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 충장로 축제도 이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지역을 상징하는 건축물 있는데 광주는 없다. 항상 새로 만드는 것들뿐인데 이런 것보다 역사적인 복원을 통해 광주만의 색깔을 찾는 게 중요하다. 지역적 특징을 살리는 호남의 건축물을 복원해서 외부에서 찾아오게 하여야 한다. 그 역할을 광주일보에서 해줘야 한다.

▲문기전 = 문화면 '박진현의 문화카페' 다시 살아났다. 오래 전부터 관심 있게 읽던 칼럼인데 다시 연재가 시작돼 기뻐다. 이 칼럼을 통해 깊이 있는 담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현상을 나열하는 식의 칼럼이 아닌 깊이 있는 시각으로 본질을 꿰뚫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칼럼이다. 전남을 벗어나 다른 언론과 비교하더라도 내용이 훌륭해 박진현이라는 기자의 개인 브랜드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본다.

▲권순석(화순전남대병원 전남지역 안센터 교수) = 최근 신종플루가 핫 이슈인데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줘야 한다. 시민들은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데 언론은 문제의 본질을 보고 제시하고 그 순간의 불안이나 공포가 아니라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유도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가 과연 전염병을 대응하는데 얼마만큼 준비가 잘 돼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타임플루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만 부각돼 있는데 그것보다 앞으로 다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과연 얼마나 충분한 대응 체계들이 갖춰져 있는지, 광주는 잘 준비돼 있는지에 대해 광주일보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다. 신종플루 사건을 계기로 대응체계의 본질적 분석과 대책을 요구할 수 있게 제안할 수 있는 기사가 나와줘야 한다.

/정리=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im Young University (김영대) featuring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대학편입의 해법은 "김영" - www.kimyong.co.kr' and '2010년 자신의 실력을 희망대학에 딱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대학편입 성공은 "역시, 김영"'.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and a list of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Sangmu Land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투자정보' (Real Estate Investment Information) listing various services like mortgage and investment adv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공인중개사' (National Real Estate Broker) with contact info and a list of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호남경매컨설팅' (Juho Nam Auction Consulting)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